

## 부산지방기상청-부산항만공사 업무협약 체결

- 기상정보융합 항만 컨테이너 안전 지원 서비스 개발 협력 강화

부산지방기상청(청장 이은정)과 부산항만공사(사장 송상근)는 3월 5일(수) 부산항만공사에서 항만 안전 기상융합서비스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기상정보를 융합한 항만 컨테이너 안전 정보를 제공하여 위험기상으로부터 안전한 항만 운영과 신속한 방재 대응을 위해 맺어졌다.

부산지방기상청은 항만 안전 맞춤형 기상융합서비스를 개발하여 부산항만공사에 제공하고, 부산항만공사는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사항들을 지원하며 향후 개발된 서비스를 현장에 적용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항만 안전 기상융합서비스 개발은 부산지방기상청 지역기상융합서비스 사업으로 2년 동안 진행된다. 강풍 등 위험기상이 항만에 적재되어 있는 컨테이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기상에 따른 컨테이너 적재 안전 정보를 부산항만공사의 「컨테이너 정렬상태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제공함으로써, 항만 내 컨테이너 무너짐 사고를 예방하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은정 부산지방기상청장은 “위험기상으로 인한 항만 내 사고 발생은 작업 지연과 인명 피해 뿐 아니라, 생산성과 정시성이 생명인 항만 신뢰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라며, “앞으로 부산항만공사와 협력을 통해 기상정보가 항만 분야와 융합되어 방재 지원과 안전 중심의 더 높은 가치를 창출하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으며,

송상근 부산항만공사장도 “항만에 최적화된 기상정보 융합 서비스는 항만 방재 의사결정 지원부터, 부산항의 글로벌 허브항만으로의 도약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라며 “서비스 개발과 현장 적용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지속적인 협력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라고 밝혔다.

붙임 부산지방기상청-부산항만공사 업무협약식 사진 1부.

담당 부서	부산지방기상청 기후서비스과	책임자	과 장	김병준 (051-718-0420)
		담당자	사무관	조희영 (051-718-0422)
<공동>	부산항만공사 항만연구부	책임자	부 장	연정흠 (051-999-8570)
		담당자	과 장	최부림 (051-999-8571)





| 업무협약식 사진 |

이은정 부산지방기상청(오른쪽)과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이 5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



| 업무협약식 주요 참석자 기념 사진 |

이은정 부산지방기상청(오른쪽 네번째)과 송상근 부산항만공사 사장(왼쪽 네번째)이 5일 부산항만공사에서 열린 업무협약식에서 기념 촬영하고 있다.